

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 '도가니' 그늘서 벗어나고 싶어 힐링 필요한 코미디 한편 찍었죠

겨울 극장가 돌풍 '수상한 그녀' 연출한 황동혁 감독

홀로 키운 아들을 국립대 교수까지 만든 할머니 오말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갈 신세로 전락한 그녀는 우연히 본 '청춘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후 20대 여성으로 변신한다. '수상한 그녀'가 지난달 22일 개봉 후 박스오피스 1~2위를 차지하며 500만 관객 돌풍을 눈앞에 뒀다.



“도가니” 찍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찍고 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주목받으면서 더 힘들었죠. 그는 시때때로 “힐링이 필요했다”고 한다. ‘도가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가 코미디 ‘수상한 그녀’의 시나리오를 보고 주저하지 않고 연출을 맡겠다고 한 이유다. “도가니”를 보면서 관객들이 팝콘조차 먹지 못하는 걸 여러 차례 봤다”던 그는 관객에게 “팝콘을 돌려줄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영화가 끝나고 한 커피를 나오는데, 팝콘이 거의 그대더라고요. 한 청년이 걸어가면서 팝콘을 먹는데, 같이 가는 여자가 ‘넌 그게 지금 넘어가니’라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때 팝콘을 먹으며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가니” 찍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찍고 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주목받으면서 더 힘들었죠. 그는 시때때로 “힐링이 필요했다”고 한다. ‘도가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가 코미디 ‘수상한 그녀’의 시나리오를 보고 주저하지 않고 연출을 맡겠다고 한 이유다. “도가니”를 보면서 관객들이 팝콘조차 먹지 못하는 걸 여러 차례 봤다”던 그는 관객에게 “팝콘을 돌려줄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영화가 끝나고 한 커피를 나오는데, 팝콘이 거의 그대더라고요. 한 청년이 걸어가면서 팝콘을 먹는데, 같이 가는 여자가 ‘넌 그게 지금 넘어가니’라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때 팝콘을 먹으며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는 약 36억원에 불과하지만 그 10배 가까운 3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성공 신화는 썼지만 그의 이 같은 ‘변신’을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일각에선 “변질했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마이파더’(2007)와 ‘도가니’(2011)처럼 사회 밑바닥을 훑거나 환부를 조망하는 영화를 만들다가 대기업의 기획영화에 가까운 코미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웃자고 만들었는데, 죽자고 달려들었다고 할까요? '이제는 돈 벌려고 영화 만든다' '변질했다' 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시선이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제가 뭐 독립운동가 사람도 아니잖아요. 재미도 중요하죠.”

사실 그를 영화계로 이끈 건 순진회 영화가 주는 재미였다. 특파원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1990년 서울대 신문학과(현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했지만,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학생운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떠난 대학가에 푸코가 들어왔고, 취직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자 그는 어느덧 “패배자처럼 캠퍼스에 남겨져” 있었다. “세상을 바꾸고자 거리를 뛰어다니던 삶”과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의 간극은 너무 컸다.

방황 속에서 영화가 찾아왔다. 시간을 배우기 위해 영화를 ‘엄청나게’ 보면서 차츰 영화에 대한 애정을 키웠고, 어머니가 사운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주변을 찍으면서 ‘천직’을 찾게 됐다.

“도가니”는 저에게 ‘야망의 갭’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훈장이자 피리표죠. 제가 뭘 하든 따라다니겠죠. ‘수상한 그녀’를 하면서 ‘도가니’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털어버렸어요. 앞으로 즐겁게 영화를 찍고 싶어요. 무거운 영화든 가벼운 영화든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연습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장혁·류수영·손진영 떠나고 배우 박진형·천정명, 가수 케이윌·헨리 합류

## MBC '일밤-진짜 사나이' 멤버 교체

배우 박진형과 천정명, 가수 케이윌과 슈퍼주니어M 헨리가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에 합류한다. MBC는 7일 “새로운 네 멤버가 프로그램에 합류해 기존 서경석, 김수호, 샘 해밍턴, 박형식과 함께 출연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에 입소해 기초 교육을 받은 뒤 기존 멤버들과 함께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천정명은 일정을 고려해 별도의 신병 교육을 받는다. MBC 관계자는 “이번 신병들의 합류로 ‘진짜 사나이’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며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기대된다”며 “기존의 일곱 명에서 여덟 명으로 멤버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한 재미와 감동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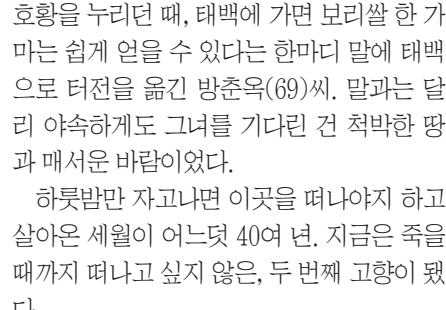
박진형 천정명

TV 하이라이트

### 마음 녹여준 태백의 어머니 밥상



### 정음 시골마을의 프랑크 가족



### 나훈아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 요리대전(EBS·오후 8시20분) = 광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때, 태백에 가면 보리쌀 한 가마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한마디 말에 태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박종옥(69)씨, 말파는 달리 아삭하게 그녀를 기다린 건 척박한 땅과 매서운 바람이었다.

하룻밤만 자고나면 이곳을 떠나야 하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여 년. 지금은 죽을 때까지 떠나고 싶지 않은, 두 번째 고향이 됐다. 처음 태백의 삶을 시작했을 때, 짐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산나물은 지금도 어머니의 밥상에서 빠지는 법이 없다고 한다. 겨울이면 ‘양미리짐’, ‘돼지등뼈’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줬다. 지나온 거친 삶을 하얗게 쌓인 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는 태백의 어머니 밥상을 만났다.

###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 = 1966년 데뷔 이후 800여 곡을 직접 작사 작곡, 3000여 곡의 노래를 부른 나훈아. ‘사랑’, ‘잡초’, ‘무시로’, ‘울긴 왜 울어’ 등 사랑받은 그의 노래들은 대부분 자작곡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티켓을 사서 와야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노래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강했다. 그런 그가 2007년 잡혀 있던 단독 콘서트 취소 후 잠적한다. 루머를 밝히기 위해 자신 기자회견을 한 후 모습을 감췄던 것. 나훈아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회원 수가 3만 명에 달하는 나훈아는 나훈아가 진정한 유일한 팬클럽이다. 나훈아가 잠적한 이후에도 회원들끼리 계속 모임을 유지하며 수시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 = 1966년 데뷔 이후 800여 곡을 직접 작사 작곡, 3000여 곡의 노래를 부른 나훈아. ‘사랑’, ‘잡초’, ‘무시로’, ‘울긴 왜 울어’ 등 사랑받은 그의 노래들은 대부분 자작곡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티켓을 사서 와야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노래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강했다. 그런 그가 2007년 잡혀 있던 단독 콘서트 취소 후 잠적한다. 루머를 밝히기 위해 자신 기자회견을 한 후 모습을 감췄던 것. 나훈아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회원 수가 3만 명에 달하는 나훈아는 나훈아가 진정한 유일한 팬클럽이다. 나훈아가 잠적한 이후에도 회원들끼리 계속 모임을 유지하며 수시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있는데...